

투데이 칼럼

장수군청 민원실에 만든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 대한 소고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양도소득세
2. 담배소비세
3. 부가가치세
4. 이자소득세

장수 장남 시장 앞에 지나가는 사람 10명을 세워놓고 물어보면 과연 몇 명이나 맞출까?

2019년 7월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아 집을 팔자마자 세정팀 직원이 “세무 마인드가 있는지 테스트해보겠다”며 다짜고짜 물어온 질문이다.

(참...오자마자 시험에 들게하더니, 못 먹어도 고다.) “3번 부가가치세!”

“땡~! 틀리셨습니다. 맞혔으면 시원한 아이스크림 한잔 타드릴라 했는데...아깝습니다. 하하”

“그런데 과장님 왜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셨어요?”

“음...그건말야, 다른 3개는 소득세, 소비세, 다 ‘소’자가 들어가잖아”

직원들 킬킬 웃긴다. (순간 유머라고 들라달까?)

무심히 말해놓고 나 스스로도 머쓱했던 기억이 새롭다.

7개월이 지난 지금 물어오면 당연히 2번 담배소비세라고 답할 수 있다.

담배소비세만 지방세고 나머지

는 국세니까. 하지만 그때 강하게 반발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지방세나 국세냐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나누냐?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지방세든 국세든 다 마찬가지로 아닌가..’ 얼어 치나 메치나 공무원생활 30년 차인 나도 모르는데... (물론 나는 시설직으로서 사업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왔다.ㅎㅎ)

이런 분류를 모른다고 문제는 아니다. 진짜 문제는 장수에 국세청 즉, 세무서가 없다는 것이었다. 인근 진안과 무주에는 지사나 국세민원실이 있는데 우리 장수군은 그런 국세 관련 기관이 없어 장수·산서·번암은 남원세무서로, 장계·천천·계남·계북은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사로 나눠서 가야했다. 식당이라도 운

영하려면 사업자번호부터 등록해야 가능하니 남원이나 진안 세무서를 방문해야했다. 이제 모든 게 과거형이 됐지만...

물론 홈택스(국세 인터넷)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장수에 세무서가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 인터넷으로 가능하니까. 하지만 모른다...실제 장수는 청년보다는 중·장년, 노년 인구가 많다.

또 청년이라고 무조건 홈택스를 선호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그리고 장수의 자존심도 있지.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를 찾아 다녀 2019년 12월 23일 우리 장수군청 민원실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도내 최초로 개소했다.

이왕 만드는 거 통합으로 했다. 통합이라는 점이 최초다. 이 통합민원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국세관련 민원이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 등 10가지이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직원이 한명 더 근무한다.

처음부터 모든 국세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세무서쪽 여건으로 제한적인 부분이 있긴 하다.

중요한 것은 장수군청 민원실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장수군민도 이제는 국세관련 민원이나 궁금한 것 때문에 무작정 남원이나 진안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 전화로도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다는 점, 군청 민원실에 온 김에 편하게 국세관련도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모바일 등이 아무리 발달해도 얼굴을 맞대고 물어보는 것보다 더 편리할까? 손가락으로 짚을 수 있을 만큼 공무원 생활이 남았다.

우리 장수군민이 무엇이든 좀 더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김기완

장수군 재무과장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코로나19로 텅 빈 중국 쇼펑센터



중국 베이징의 한 쇼펑센터에서 14일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걸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인해 쇼펑센터가 텅 비어있다시피 하고 있다.

입법 회의서 투표하는 후안 궈이도 의장



후안 궈이도(가운데)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18일(현지시간) 수도 카리커스의 샌안 토니오 시립극장에서 입법 회의를 주재하고 투표하고 있다. 궈이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해 장소에서 입법 회의를 열었다.

사설

도내 인구 지금도 계속 감소되고 있다

인구 감소 현상과 관련해 제대로 된 무엇인가를 보여줘야겠다. 전북도는 지난날 인구 감소를 막겠다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다. 그것은 기대를 갖게하는 소식들이었다. 새롭고 좀더 나은 대책을 강구하나라고 싶었던 것이다.그런데 오늘의 현실을 보면 답답하다. 우리 전북이 갈수록 조그라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출생아의 수는 전국 최저치인데 노인 인구는 사망률이 높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탈향 현상은 여전히

나. 늘 강조해 지적하고 있거니와 전북의 인구 감소는 일자리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일자리가 많아야 젊은이들이 여기 눌러 살면서 결혼도 할 것이고 출산도 할 것이다. 전북도는 도내 취업률이 상승했다는 반짝 보도를 내놓은 적이 몇 번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뿐이었다. 일자리 비교 현실을 보면 항상 전국 밑바닥 수준이다.전북도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방침만 간헐적으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지역 현안을 두고 졸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대로는 곤란하다.

도내에는 지난해 뜻을 이루지 못한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언제 풀이나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 답답한 나날이다. 도지사와 측근 브레인들은 데스크만 지킬 게 아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야 한다. 그리고 이같은 요구는 그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있어야겠다. 다들 선공후사의 정신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어쩌다 성과를 내면 자기 쪽 노력 덕이라 공치사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지역 발전이 요원하다. 이같은 요구는 그 이유가 분명하다. 문제가 잘 안풀렸을 때는 서로 네 탓 공방을 했었던 까닭이다. 여기 강조해 말하거니와 지역 발전은 전북도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다.

군산 시민이 정부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데서 알수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 정부가 눈길을 돌리도록 해야겠다. 수년

전북도는 전북형 일자리가 답이다.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도내 고용 동향을 보자면 안타까울 뿐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계획만 흘러 말해서는 안된다.먼저 지역 인제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행보가 특별해야겠다. 군산형 일자리 추진이 더딘데 어떻게 속도를 내보려는 움직임이 눈에 보인다.

전북도는 전북형 일자리 창출로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 오래전부터 수차례 언급했거니와 도내의 많은 젊은이들이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겠다. 비교적 괜찮다는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한다오호러 줄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불만은 괜한 것이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주와 익산 등 여러 기업에서는 실업자가 양산될 조짐이다. 전북도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 당할 때마다 참담함을 느껴야겠다.

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울에서 수많은 군중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요구한 그대로이다. 현대조선소 재가동이 속히 있어야 한다.

군산 경제가 무너진지 오래라서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나날이다.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이 어렵다면 이제 짝사랑은 때려치워야 한다. 다른 방도를 강구해 전기자동차 생산을 2022년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서두르자는 것이다.

지역 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지역은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들이 다른 관역 시도보다 많다.

전북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지역의 현실을 폭 넓게 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지역을 경인하는 이들은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겠다. 다들 힘차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주문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